

장백산천지

제29호

2007년 4월 20일

금요일

도덕과 인류의 훼손

최근 많은 사전문명이 발견되었다. 인류는 한차례 또 한 차례 훼손되어 온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주고 있다.

1. 소실된 폼페이

기원 79년 8월 24일 오후, 고대로마제국의 가장 번영한 도시 폼페이가 화산폭발로 18시간 만에 소실되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분화구의 뚜껑이 열리더니 1,000도에 달하는 고온용암이 분화구에서 뿜어져나왔다. 선홍색의 자갈들이 7,000미터 고공에까지 날아 올랐으며 화산재, 부석, 화산자갈들이 '소나기'로 변하여 폼페이성에 8주간 내렸다. 화산이 폭발한지 18시간뒤에 화산재는 폼페이성 전체를 덮어버렸는데 가장 깊은 곳은 19미터나 되어 아름다운 화원같은 폼페이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고증에 따르면 폼페이인들의 생활은 무절제한 성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에 빠져있었다. 시내에는 크고작은 술집이 많았고 대부분 여성들이 경영하였다.

도시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목욕탕은 사람들의 날로 높아가는 향수와 욕망을 만족 시켰다.

2. 괴멸된 바빌로니아

3,800년전 강대한 바렌왕국은 사람들에게 력사의 전례없던 위황함을 보여주었다.

력사의 기재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때 바빌로니아는 이미 도덕이 매우 타락하여 대부분의 도시가 사치하고 음탕한 상징으로 되었으며 심지어 많은 절에까지 기생들로 넘쳤다. 육욕에 빠져 절제하지 않았기에 남성들의 체질이 급격히 하락되었고 전국에 성병이 유행하였다.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 고대 바빌로니아는 사막에 의해 철저히 괴멸되었다.

3. 멸망된 고대 로마제국

고대로마의 가장 번영했던 시기말에, 사람들의 생활은 이미 인류의 규범에서 멀리 이탈되었고 금방죽인 노예의 육신을 바다뱀장어에게 먹었는데 귀족들은 이런 사람고기를 먹은 바다뱀장어의 맛

이 제일 좋다고 여겼다. 2만여명의 도시에는 25개의 부동산 종류의 기생집이 있었고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사람과 짐승이 격투하는 피비린 표현을 보고 미친듯이 좋다고 발광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을 재미로 여겼다. 그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로마제국은 역병으로 뒤덮혔고 수많은 국민이 죽었고 온거리에는 죽은 시체로 쌓였으며 세번의 큰 온역을 거친후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끝내 멸망 되고 말았다.

맺는말:

지금의 중국사회는 암흑하고 도덕이 상실되었으며 룬락, 도박, 마약이 범람하고 탐관오리, 먹고마시고, 바람피우고, 강도질하는 것이 흔하다. 근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스, 바다폭풍, 돼지연쇄상구균병, 조류독감, 가뭄, 모래폭풍, 지속적인 고온날씨 등은 하늘이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기이한 죽음 - 천벌의 서언

력사상 정신(正信)을 박해하여 천벌을 받은 최대사건은 바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제국이 세차례의 대온역으로 훼손되었다. 력사자료는 그당시 전경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어디서나 사람이 없어서 매장하지 못한 시체들이 거리에 지저분히 널려져 있었는데 복부는 부어올랐고 벌린 입은 진물을 내뿜고 있었으며 두 눈은 빨갛고 두손은 위로 쳐들고 있었다. 시체는 겹쌓여서 골목과 거리에서 정원과 교회당에서 썩고 있었다.

천년이 지났건만 이 침통한 력사교훈은 오늘도 여전히 재차 연출되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중공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신도를 박해한 폭군 니루가 로마성을 불사르고 기독교신도들에게 죄

를 뒤집어씌워 그들을 참혹하게 박해하였다. 오늘날 중공의 공산독재자 강택민이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을 조작하여 파룬궁학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3천여명이 박해로 사망되었고 수천만명의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고 있다. 명혜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공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각급지도자, 공안국국장, 법원원장, 110두목, 정법위원회서기, 파출소소장, 거민위원회주임등등이 악보를 받아 차사고로 죽거나 괴상한 병에 걸려 죽었으며 또한 벼락맞아 죽었거나 암에 걸려 죽었고 폭사하고 자살했다. 이것은 대온역이 닥쳐오기 전 하늘이 자비를 베풀어 소수인에게 천벌을 내려 세인들을 빨리 각성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공산악당과 악인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자신의 죄를 씻고 중공에서 탈당하고 파룬궁을 지지하여 평안을 확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함이 현명한 선택이다.

2000만 중국인이 퇴당



공산사령의 뿌리가뺏혔는데 당신은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국무원 공안부 고급간부의 퇴당성명

나는 로당원이며 중공고급간부였다. 20세기 20년대에 혁명에 참가했고 30년대에 입당했다. 국무원, 내무부, 공안부에서 요직을 맡았었다.

다년간 정치운동을 일으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비극이 21세기 오늘까지 연출되었다. 더욱이 법륜공에대한 박해는 나로 하여금 공산당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했다.

나는 허다한 중공내막을 료해하고 있는바 많이 알수록 더욱 절망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원인으로 나는 많이 말하지 않겠다. 사실은 온가보 총리를 포함한 허다한 중공 지도자들은 법륜공 박해에 대해 아주 잘 료해하고 있다. 왜 한마디 말도 감히 하지 못하는가? 온가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할아버지 온봉구가 문화대혁명시기 진성에 갇혔었는데 내부사람이 만약 진실을 말하여 정의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박해로 죽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 무수한 상방민중(訪民)과 억울한 백성은 모두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의 령혼을 다른 세계에서 고이 잠들게 하기 위해 특별히 나의 후배가 대필하여 가명으로 공산당 등 일체 관련조직에서 퇴출하고 철저히 결렬하며 모든 옛 맹세를 전부 작폐함을 엄정성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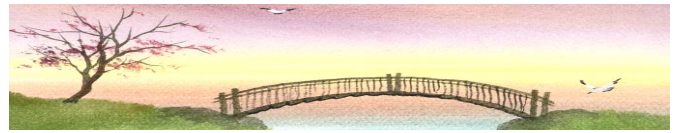
류사 2005년 3월 11일

망진비(亡秦碑)와 망공석(亡共石)

진시황은 사람을 시켜 장생불로약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망진자는 호이니라”라고 쓴 비석을 가져왔다.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예언이 민간에 널리 퍼지자 진시황은 침식을 잃고 안절부절 못했다. 망진자의 호는 북방의 호족이라고 생각한 진시황은 30만 대군을 풀어 북쪽의 흉노를 토벌하고 나서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진 2세(秦二世) 호해(胡亥)가 집정할 때 기의봉화가 도처에 타올라 끝내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2002년 6월, 귀주평당현 장포풍경구에서 2억 7천만년전의 “장자석”을 발견했는데 터져나온 거석 절단면에 큰 한자로 <중국공산당망(中国共产党亡)>이라고 씌여져 있다. 중공은 망자를 지워버린 사진을 풍경구의 유람문표에 찍어 <구성석(救星石)>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또한 참관하러 온 유람객들은 이 망공석을 보기만 할뿐 의론하지 못한다는 규정까지 지었다.

옛날엔 <망진비>가 있었고 오늘은 <망공석>이 있으니 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고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는가?



착하면 착한 보답이 있다

항일전쟁 시기, 나의 이모부는 국민당 장교였다. 한번은 행군도중에 그는 소매점에서 물품을 파는 할머니가 상심하여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앞에 다가가 왜 울고 있는가고 친절히 물었다. 할머니는 말하기를 방금 한 사람이 물건을 사갔는데 가짜 은화 한 잎으로 자신의 많은 물건을 사갔으니 워낙 빈곤한 집이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고 했다. 그는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진짜 은화를 꺼내어 로인에게 주고는 가짜 은화를 웃옷 안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곧 부대를 쫓아갔다. 그후 전쟁터에서 그의 가슴은 그만 적탄에 맞았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경상을 입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적탄이 그의 가슴에 날아들 때 마침 웃옷 호주머니 속에 넣었던 가짜 은화가 막았던 것이다.

갓난아기가 층집에서 떨어진 뒤



2005년 11월, 하북성모시 거민구역 층집에 사는 한 어머니는 한손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발코니 주방에 가 고구마를 삶으려고 다른 한손으로 액화가스밸브를 열었으나 돌릴수 없자 갓난아기를 발코니안쪽 건조대에 얹혀놓았다. 밸브를 열려는 순간,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돌려보니 갓난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그는 다급히 층계를 내려왔다. 법륜대법을 수련하는 옆집 아주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애의 낯색은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칼국수처럼 나른해졌으며 당장 숨을 거두고 있었다. 옆집아주머니는 애를 안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사부님께서 이 애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묵념했다. 이윽고 애는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낯색이 호전되고 손발을 놀렸다. 마을사람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병원에서 CT, B 초를 해보니 모두 정상이었다. 지금 온집식구들은 《3퇴》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과해도 병이 치유될수 있다

한 환자가 머리가 아프고 실면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원에 진단하러 갔다. 전면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마음에 가책되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병을 떼어주겠소.》 라고 의사가 말하자 그 환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할때 국외에서 사는 형제들을 기편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의 말대로 즉시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량해를 구했고 또 지표 한장을 부쳐 배상했다. 그날따라 그의 병은 삽시에 완쾌되었다.



알림

<장백산천지>신문은 매주 금요일전에 <명혜망>진상자료전단지에 발표하오니 지난주의 것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본주의 것을 다운로드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장백산천지>편집부 2007년 4월 18일